

무주군 제철유적의 현황과 그 의미

곽장근*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제철유적의 분석과 그 역사성 |
| 2. 무주군 자연환경 및 인문지리 | 5. 맺음말 |
| 3. 권역의 설정과 제철유적 현황 | 참고문헌 |
| | <Abstract> |

국문초록

백두대간 품속 무주군은 금·은·동·철 등 지하자원의 보고이다. 이제까지의 지표조사를 통해 12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발견되어 전국 단일 지자체 중 그 수가 가장 많다. 무주군을 가로지르는 남대천을 중심으로 원당천과 구량천 유역에서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높고, 행정 구역상으로는 무주군 무풍면과 설천면, 안성면이 여기에 해당된다. 아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발굴조사가 미진하지만 유적과 유물로 가야·백제·신라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무주 당산리 산성에서 시작하는 한 갈래의 봉화로는 무주 노고산 봉화와 봉화산을 거쳐 장수군 장계분지까지 이어진다. 백두대간 삼봉산에서 나제통문 북쪽 석모산까지 뻗은 산줄기에도 봉화가 배치되어 있다. 5세기 말엽 경 신라가 백두대간을 넘어 무주군 일대로의 진출이 무주 대차리 고분군 발굴조사에서 검증되었고, 무풍면 현대리 산성이 신라 무산성으로 판단된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등장하는 대곡소와 안성소를 철소(鐵所)로 대곡소는 동소(銅所)로 추정된다. 이제까지 무주군이 덕유산 등 ‘청정무주’로 회자되고 있지만 향후 제철유적의 역사성을 고증한 뒤 이를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 가야, 백제, 신라, 제철유적, 백두대간, 덕유산

* 국립군산대학교 교수, E-mail: kjk@kunsan.ac.kr

1. 머리말

호남의 지붕으로 알려진 진안고원 동북쪽에 무주군이 위치한다. 무주군은 전형적인 산간지대로 동고서저(東高西低)와 남고북저(南高北低)의 지형을 이룬다.¹⁾ 백두대간 산줄기가 동쪽에 금강이 서쪽에 위치하여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 백두대간을 품은 안성분지가 남쪽에 무주군을 횡단하는 남대천(南大川)이 북쪽에 자리하여 남고북저를 형성한다. 무주군 전 지역에 철광석이 광범위하게 매장되어 있으면서 계곡이 깊고 나무가 울창해 제철유적이 들어설 수 있는 최적의 자연환경을 갖추었다.

2007년 무주군에서 두 개소의 제철유적이 처음 학계에 보고되었다.²⁾ 2015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 디지털무주문화대전에서 그 수가 10여 개소로 늘었다. 이 무렵 국립군산대학교 고고학팀이 장수군 제철유적을 찾는 자체 지표조사를 진행하면서 무주군 일부 지역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옛 문헌이나 말로 전하여 내려온 이야기가 거의 없었지만 고고학자들의 도전과 끈기로 무주군 제철유적의 존재를 학계에 알렸다.

2017년 가야사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전북 동부 제철유적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인 학술조사가 기획되었다.³⁾ 그 이유는 계속하여 언제나 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가야를 대부분 철의 왕국으로 복원해 주기를 염원하였기 때문이다. 그해 전북 동부에서 200여 개소의 제철유적을 찾아 권역별로 제철유적의 분포양상과 현황을 보고서⁴⁾에 수록함으로써 무주군 등 전북 동부 철산지가 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무주군 제철유적 추가 지표조사의 필요성이 자문회의에서 제기되어, 2018년 국립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주관 지표조사를 통해 무주군 제철유적의 수가 57개소로 증가하였다.⁵⁾ 무주군 제철유적을 찾는 것 못지않게 제철유적의 보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황 파악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 안타깝게 덕유산 국립공원 내 제철유적을 제외하면 다른 제철유적은 농경지 개간과 경

1) 디지털무주문화대전(<http://muju.grandculture.net>).

2)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7, 『무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무주군, 2007.

3)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전북가야사 및 유적 정비 활용방안』, 전북연구원, 2018, 36~75쪽.

4)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전북가야 제철 및 봉수유적 정밀 현황조사』, 전라북도, 2019, 176~229쪽.

5)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무주 봉수 및 제철유적 정밀 분포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무주군, 2018.

작 활동으로 그 보존상태가 그다지 양호하지 않았다.

2021년부터 전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 60여 개소의 제철유적을 더 찾아 그 수가 120여 개소에 달한다. 우리나라 단일 지자체 중 제철유적이 가장 많이 발견되어, 무주군이 제철유적의 메카라는 새로운 슬로건도 만들었다. 여기에 구리를 생산하던 제동유적의 흔적도 확인되었다. 아직은 무주군 제철유적 및 제동유적의 역사성을 검증하기 위한 학술 발굴조사⁶⁾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전북 동부에서 무주군이 생산유적의 보고로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다.

무주군 등 전북 동부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300여 개소의 제철유적은 대체로 수량이 풍부하고 평탄지가 발달한 계곡에 터를 잡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철광석 산지이어야 하며, 첨단기술의 전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전북 동부는 제철유적과 관련된 세 가지의 핵심 조건을 대부분 충족시켰다.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제철유적의 역사성을 검증하기 위한 학술 발굴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미진한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표조사에서 축적된 고고학 자료를 중심으로 무주군 제철유적의 의미와 역사성을 분석하려고 한다.

2. 무주군 자연환경 및 인문지리

백두대간⁷⁾은 한반도의 척추이자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다. 백두산 장군봉에서 시작하여 동쪽 해안선을 끼고 남쪽으로 흐르다가 태백산 근처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덕유산 백암봉을 거쳐 지리산 천왕봉까지 뻗은 거대한 산줄기이다. 우리나라의 국토를 동서로 갈라놓는 큰 산줄기로서 다시 이곳에서 뻗어나간 여러 갈래의 산줄기들은 지역권 및 생활권을 구분 짓는 경계선이 되었다. 삼국시대 때는 백제와 신라의 국경을 형성하였고, 조선시대 때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갈라놓는 행정 경계를 이루었다.

조선 태종 14년(1414) 전국을 8도로 나눌 때 삼남의 분기점이 백두대간 삼도봉(三道峰)이다. 경북 김천시와 충북 영동군, 전북 무주군 경계로 달리 날라 리봉이라고도 불린다. 이곳에서 대덕산(大德山)과 삼봉산(三峰山), 덕유산 백암봉을 지나 무룡산(흰뎀불이재) 남쪽 샛갯봉까지 이어진 백두대간 산줄기가 무주군 동쪽 경계를 이룬다. 백두대간 서쪽 기슭에서 시작하는 여러 갈래의 물

6)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전북 동부지역 제철유적 현황과 조사성과』, 2021.

7) 신경준, 1990, 『산경표』, 푸른산.

줄기는 수량이 넉넉해 제철유적을 운영하는데 최적의 자연환경을 제공한다.

금남호남정맥 신무산 동북쪽 기슭 뜬봉샘에서 발원하는 금강은 줄곧 북쪽으로 흐르다가 진안 용담댐으로 유입된다. 금강이 무주군과 진안군, 충남 금산군과 경계를 이루면서 동북쪽으로 흘러 충북 영동군으로 들어간다. 금강 북쪽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대유리 일대는 철광석 산지로 무주군에서 또 다른 제철유적의 중심지다. 금강이 백제의 진출을 막아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가야세력이 가야계 정치체로 발전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⁸⁾

무주군 남쪽에 안성분지가 위치한다. 안성분지는 해발 400m 내외의 고원지대이자 천혜의 자연분지다. 백두대간 샷갯봉과 덕유산에서 서쪽으로 갈라진 산자락이 사방을 병풍처럼 휘감아 마치 샹그릴라를 연상시킨다. 안성분지를 적셔주는 구랑천을 따라 충적지와 구릉지가 발달해 빼어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무주군에서 또 다른 철광석 산지로 수량이 풍부하고 계곡이 깊어 무주군에서도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높다.

백두대간 대덕산(大德山)에서 발원하는 남대천이 무주군 북쪽을 횡단하면서 충북 영동군 용화면과 경계를 이루면서 서쪽으로 흐른다. 백두대간 북쪽 기슭에서 시작하는 여러 갈래 물줄기가 철광석 산지를 넉넉하게 적셔주어 무주군 제철유적의 80% 정도 남대천 유역에 모여 있다. 무주군 명산 덕유산과 대덕산, 만복산, 민주지산, 적상산이 남대천 유역에 자리한다. 20억 년 전 퇴적작용과 2억 년 뒤 높은 온도와 압력에 의해 만들어진 편마암이 광범위하게 매장되어 있다.

무주군은 지질자원의 보고이다. 암석이 열이나 높은 압력을 받아 다른 성질의 암석으로 변한 변성암이 무주군에 골고루 분포한다. 백두대간 산줄기를 따라 무주군 동남부와 서북부에는 얇은 판 모양으로 쪼개지는 결정편암이 폭넓게 산재해 있다. 무주읍 오산리 구상 화강 편마암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구상암(球狀岩)은 공처럼 둥근 암석으로 우리나라에서 다섯 곳에서 발견된 희귀한 암석이다. 화강 편마암은 운모, 석영, 장석 등의 광물로 이루어진 변성암이다.

전북 동부에서 처음 철기문화가 시작된 곳이 장수 남양리 유적이다. 기원전 2세기 말엽 지배자 무덤에서 청동유물, 철기유물이 반절씩 섞인 상태로 나왔다.⁹⁾ 이 무렵 전북 동부에 선진문물인 청동문화와 철기문화가 함께 전래되었

8) 전상학, 「진안고원 가야의 지역성」, 『湖南考古學報』 43, 湖南考古學會, 2013.

9) 池健吉, 「長水 南陽里 出土 青銅器·鐵器 一括遺物」, 『考古學誌』 第2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1990. 柳哲, 「全北地方 墓制에 대한 小考」, 『湖南考古學報』 3, 湖南考古學會, 1995. 한수영, 「장수지역 철기문화의 출현과 전개 - 남양리 유적을 중심으로 -」, 『백두대

음을 알렸다. 무주군 안성면은 장수 남양리와 진안 구량리 제동유적¹⁰⁾과 인접되어, 일찍부터 동일한 문화권 및 생활권이 형성되었던 곳이다. 당시 선진문화가 장수군에서 무주군으로 곧장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모든 제철유적의 심장부인 제련로를 만들려면 좋은 품질의 흙이 있어야 한다. 산죽은 대체로 양질의 흙에서 자생한다. 무주군은 산죽 군락지가 많아 용광로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양질의 흙 등 자원의 보고이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힘을 합쳐 탄생시킨 것이 제철유적이다. 무주군은 제철유적에서 요구되는 핵심 조건들을 대부분 충족시켰으며, 자연이 선물한 철광석과 숯, 흙, 물 등이 풍부하고, 인간의 지혜를 상징하는 첨단기술도 전래되었다.

무주군 제철유적의 역사성을 지명에도 수놓은 것 같다. 무주군의 명산 덕유산(德裕山)은 풍요로움이 넘친다는 의미로 그 산봉우리는 향기를 쌓았다는 향적봉(香積峰)이다. 전북 동부 지명의 제왕이다.¹¹⁾ 백두대간 수령은 전사자가 많아 본래 빼재였는데, 그 의미가 빼재, 수령으로 와전되었다.¹²⁾ 백두대간 달암재도 당초 제철유적의 존재를 담았지만 철과 관련이 없는 월음령으로 그 의미가 바뀌었다.¹³⁾ 백두대간 대덕산과 만복산, 김해산(金海山) 등도 무주군 제철유적의 존재를 지명으로 암시한다.

삼국시대 때 무주군은 유적과 유물로 가야와 백제, 신라를 조우할 수 있는 곳이다. 무주 봉화산 등 봉화망으로 장수가야¹⁴⁾의 영역이 복원되었고, 무주 대차리, 무주 당산리 발굴성곽과 신라의 진출도 확인되었다. 아직은 무주군 제철

간을 품은 장수가야 철을 밝히다』, 호남고고학회·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6.

10) 유영춘, 「전라지역 제철유적 검토」, 『최신 동북아시아 고대 제철유적의 발굴성과와 그 의미』,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2018. 유영춘, 「장수 대적골 조사성과와 의미」, 『전북 동부지역 제철유적 현황과 조사성과』,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1, 63~93쪽.

11) 옛부터 덕이 많아 넉넉한 산 혹은 너그러운 산으로 불리는 산이다. 이곳에 오르면 북으로 적상산을 가까이 두고 멀리 계룡산, 서쪽으로 운장산과 대둔산, 남쪽으로 지리산, 동쪽으로 가야산이 보인다. 백련사에서 나제통문까지 33경으로 유명한 최고의 절경지로 1975년 오대산과 함께 10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12) 백두대간 빼재는 빼재로 불리게 된다. 경상도 사람들이 빼재의 빼 발음이 쉽지 않아 빼를 빼라고 부르게 된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이를 다시 일제가 한자로 옮기는 과정에 빼어날 수(秀)자를 써서 수령(秀嶺)으로 와전된 것이다. 일제는 다시 백두대간 추풍령에서 착안하여 신의 위력으로 일어나는 바람이라는 뜻을 가진 신평령으로도 불렀다.

13) 본래 달암재 지명에는 달(達)에 달구다와 암(巖)에 철광석 의미가 숨어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 일제(日帝)가 지명을 한자로 바꾸면서 철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달을 문(Moon)으로 암을 그늘[暗]으로 이해하고 월음령으로 그 의미가 와전된 것이 아닌가 싶다.

14) 전북 동부에서만 그 존재를 드러낸 봉화망에 근거를 두고 반파가야로 비정되었지만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탑동마을 추정 왕궁터가 발굴조사로 그 역사성과 진정성이 검증되기 이전까지 반파가야를 장수가야로 부르고자 한다.



〈그림 1〉 무주 대차리 고분군 출토 신라토기 모음

유적이 발굴조사로 그 역사성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신라와 장수가야가 철산지를 두고 무주군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장수가야가 백제에 의해 멸망된 이후 나제통문¹⁵⁾을 경계로 백제와 신라가 무주군에 국력을 쏟았음을 엿볼 수 있다.

무주군 무주읍은 백제 적천현으로 통일신라 때 단천현(丹川縣)이라 하다가, 고려시대 주계현(朱溪縣)으로 그 이름을 고쳤다.¹⁶⁾ 우리말로 철의 의미가 담긴 ‘씻물’ 혹은 ‘녹물’을 1500년 동안 죽 잊달아 지켜왔다.¹⁷⁾ 무주군 무풍면은 신라 무산현(茂山縣)으로 그 이름이 무풍현(茂豐縣)으로 바뀌었는데, 지명 속에 지상낙원과 같은 풍요로움이 녹아있다. 무주군 무풍면은 조선시대 십승지에도 그 이름을 당당히 올린 대규모 철산지였다.

고려 때 14개의 암자를 거느리고 9천여 명의 불자들이 생활할 수 있었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 절 혹은 승려에게 돈이나 음식을 보시하는 시주의 본바탕은 무엇이었을까? 요사이 덕유산 일대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한 제철유적이 시주의 근원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고학에서는 제철유적을 단연코 생산유적의 최고봉으로 꼽는다. 고려시대 14개의 암자를 거느렸던 덕유산은 거의 모든 골짜기마다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었을 정도로 지붕 없는 제철유적 박물관이다.

무주 구천동은 그 지명의 유래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진다. 하나는 옛날 덕유산에서 9천여 명의 성불공자(成佛功者)가 살았다 하여 구천동이라고

15) 1931년 일제가 석모산 암벽을 뚫어 만든 곳으로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에 자리한다.

16) 『삼국사기』 진례군조에 “단천현은 본래 백제 적천현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주계현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17) 곽장근, 「전북 동부지역 제철유적 현황과 그 시론」, 『건지인문학』 제27호,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0, 34쪽.

불렀고, 다른 하나는 구씨(具氏)와 천씨(千氏)가 살며 집안싸움을 하는 것을 어사 박문수가 해결하여 구천동(具千洞)이라 불리다가 지금의 구천동(九千洞)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어느 이야기와 더 깊은 관련이 있는가를 단언할 수 없지만 덕유산 일대에 절이 많았던 것만은 분명하다.

다행히 무주군 제철유적이 문헌에 초대를 받아 역사고고학¹⁸⁾으로 그 실체를 얼마간 추론할 수 있게 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반계수록(磻溪隨錄)』 등 문헌에 무주군 세개소의 소(所)가 언급되어 있는데, 최근에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주관 지표조사를 통해 소의 위치 및 성격이 파악되었다. 무주군 제철유적 지표조사에서 축적된 고고학 자료를 문헌에 접목시켜 무주군 제철유적의 역사성을 검토하려고 한다.

3. 권역의 설정과 제철유적 현황

1) 권역 설정 및 제철유적 현황

백두대간 서쪽 금강 상류에 위치한 무주군은 여러 갈래의 물줄기를 거느린다. 무주군 제철유적은 대체로 수량이 풍부한 계곡에 자리하여 물줄기를 기준으로 권역을 설정한 뒤 제철유적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행정 구역에 다시 적용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무주군을 적셔주는 금강의 물줄기로는 남대천·원당천·미대천·구량천·적상천·가당천·오산천 등이 있으며, 행정 구역상으로는 무주군 무주읍·무풍면·설천면·적상면·안성면·부남면 등으로 나뉜다.

첫째, 무주군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남대천 유역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적천(赤川)은 대덕산에서 나와 객관 앞을 지나 금산군 경내로 흘러간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대동여지도에는 남대천이 적천으로 등장하고, 조선 중기 문인 임훈(林薰)의 『덕유산향적봉기(德裕山香積峯記)』에는 녹천(鹿川)으로 나온다.¹⁹⁾ 1750년대 초 전국의 군현을 회화식으로 그린 『해동지도(海東地圖)』에는 적천과 함께 대천남천(大川南川)이 등장하는데, 대천남천은 "부(府) 남쪽 1리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18) 고고학 자료를 문헌에 접목시켜 논의한 뒤 이를 근거로 결론을 도출한다.

19) 조선 전기의 문신 임훈이 덕유산 향적봉을 등반한 내용을 담은 장편의 기행문이다.

백두대간 대덕산 서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남대천은 무풍분지를 적셔주는 여러 갈래 물줄기를 거느린다. 무풍분지에서 줄곧 서북쪽으로 흐르다가 설천면 소천리에서 구천동계곡에서 내려온 원당천을 합친 뒤 다시 서북쪽으로 흘러 무주읍 대차리에서 금강으로 유입된다. 무풍분지 일원에 20여 개소와 상류 구간에 2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골고루 산재해 있다. 나제통문 동쪽 남대천 상류에는 제동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개연성도 상당히 높다.

둘째, 덕유산 동쪽 원당천(元塘川) 유역이다. 옛 지도와 문헌에는 원당천이 등장하지 않지만 달리 설천 혹은 소천으로 불린다. 일제강점기에 만든 『조선지형도(朝鮮地形圖)』²⁰⁾에 원당천이 표시되어 대한제국 때 처음 사용된 지명으로 보인다. 백두대간 삼봉산 서북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덕유산 국립공원을 관통한 뒤 설천면 소천리 설천제방교에서 남대천으로 유입된다. 삼봉산은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생긴 지명으로 덕유산이 시작된다고 하여 덕유원봉으로도 불린다.

원당천은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일대를 적신 여러 갈래의 물줄기를 합친 뒤 줄곧 북쪽으로 흐른다.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청암교에서 구천동천(九千洞川)이, 설천면 심곡리 배방교 인근에서 등방천(等芳川)이, 설천면 두길리 구산 마을회관 앞에서 벌한천(伐寒川)이 원당천과 합류한다. 무주군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120여 개소의 제철유적 중 50여 개소가 원당천 유역에 모여 있다. 설천면 심곡리 배방교차로 남쪽 충적지가 구리들로 제동유적의 존재 가능성도 점쳐진다.

셋째, 미대천 유역도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높다. 옛 지도와 문헌에는 미대천 지명이 등장하지 않는다.²¹⁾ 아직 미대천 발원지가 어딘지 명명되지 않았지만 백두대간 삼도봉 서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가장 길다. 이 물줄기가 설천면 미천리와 대불리를 적셔주어 미대천은 두 지명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1914년 대불리 지명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 구역상으로는 설천면에 속해 있지만 거리상으로는 무풍면 소재지가 더 가깝다.

백두대간 삼도봉을 중심으로 박석산까지 이어진 산줄기가 미대천 유역 서쪽 경계이다. 그리고 삼보동에서 민주지산까지 이어진 험준한 산줄기가 전북과 충북 행정 경계를 이룬다. 이 산줄기의 서쪽 골짜기는 수량이 풍부해 제철유

20) 1909년부터 1917년 사이에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에서 제작한 36개 지역의 지형도이다.

21) 무주군을 횡단하는 남대천 북쪽으로 무풍분지와 함께 신라 영역에 속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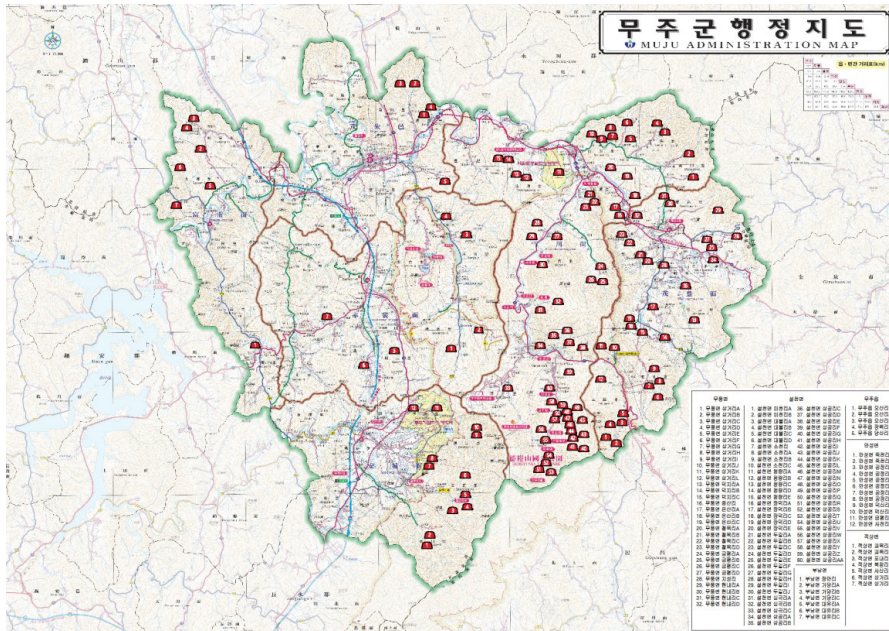
적이 들어설 수 있는 최적의 자연조건을 갖추었다. 현재까지 1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발견되었지만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무주군에서도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다.

넷째, 안성분지를 적셔주는 구량천 유역에도 제철유적이 많다.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에 두었던 동향소에서 구량천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구량은 구리가 나는 고장이라 해서 생긴 구리향을 한자로 옮긴 것이라고 한다. 백두대간 서쪽 기슭에서 시작하는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안성분지를 풍요롭게 적신 뒤 안성면 사전리에서 하나로 합쳐져 계속해서 서쪽으로 흘러 진안군 동향면으로 내려간다. 행정 구역상 무주군에 속해 있지만 생활권은 장수군과도 활발하다.

백두대간 산줄기가 안성분지 동쪽 경계를 이룬다. 덕유산 향적봉 서쪽 덕산계곡, 백두대간 서쪽 용추계곡과 명천계곡에 제철유적이 골고루 산재해 있다. 백두대간 동엽령(동엽이재)을 넘어 안성분지에서 거창 방면으로 이어지는 옛길이 통과하는 용추계곡에 제철유적이 가장 많다. 현재까지 1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발견되어 무주군에서도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높은 곳이다. 진안군 동향면과 인접되어 제동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다섯째, 적상천 유역에도 제철유적이 자리한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적상면이 만들어지면서 적상천 지명도 생겼다. 무주군 적상면과 안성면 경계를 이룬 어둔산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적상천은 계속해서 북쪽으로 흐르다가 무주읍 대차리 서면교 부근에서 남대천으로 유입된다. 이제까지 적상천 유역에서 5개소의 제철유적이 발견되었는데, 그 수가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상천 유역 최상류에 쇠 바다를 의미하는 김해산(金海山)이 있어 큰 관심을 끈다.

여섯째, 가당천 유역에서도 제철유적이 발견되었다. 전북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와 충남 금산군 남일면 덕천리 경계를 이룬 덕기봉 동남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가당천은 줄곧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금강으로 들어간다. 무주군에서 유일하게 금강 북쪽에 위치한다. 1914년 충남에서 전북으로 편입된 부남면 가당리에서 가당천 지명이 유래되었고, 현재 세 개소의 제철유적이 발견되었지만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제철유적 현황도

마지막으로 오산천 유역에서도 세 개소의 제철유적이 발견되었다. 전북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와 충북 영동군 학산면 아암리 경계를 이룬 백하산 서남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오산천은 달리 대왕천(大旺川)으로도 불린다. 오산천은 내내 남쪽으로 흐르다가 오산리 마을회관 부근에서 남대천으로 들어간다. 오산천 유역은 철분의 함유량이 높은 흑운모 편마암 지대가 폭넓게 발달해 더 많은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짐쳐진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무주군은 제철유적의 메카다. 무주군 무주읍 일부 지역²²⁾을 제외하면 12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골고루 산재해 있다. 금강 북쪽 부남면 가당리·대유리 일대도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높은 편이다. 무주군 부남면 장안리에서 제동유적이 발견되었고, 구리들과 구리암골 등 지명으로도 더 많은 제동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앞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핵심 제철유적을 선정한 뒤 유적의 현황과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밀 지표조사가 요망된다.

22) 금강을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한 무주읍과 부남면, 적성면 일부 지역에서는 제철유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2) 읍면별 제철·제동유적의 현황

전북 동북부에 위치한 무주군은 금강 유역에 속한 전형적인 산간지대로 1읍 5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1414년(태종 14) 무풍현의 ‘무’자와 주계현의 ‘주’자를 한 자씩 따서 ‘무주’라는 지명이 처음 생겼다. 이제까지는 ‘청정무주’와 ‘태권도 성지’로 회자되었지만, 최근에는 제철유적의 보고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무주군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제철유적의 현황을 읍면별로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무주군 북부에 위치한 무주읍 제철유적이다. 무주읍은 백제 적천현의 행정치소로 통일신라 때 단천현으로, 고려 초 주계현으로, 조선시대 무주현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부내면, 서면, 북면을 합쳐 무주면이 만들어졌고, 1979년 무주면이 무주읍으로 승격되었다. 무주읍 동북쪽 오산리에서 3개소, 장백리와 당산리에서 각각 1개소 등 모두 5개소의 제철유적이 발견되었는데, 무주읍 내도리·대차리 일대에도 제철유적이 더 자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둘째, 무주군 동북쪽에 위치한 무풍면 제철유적이다. 백두대간 산줄기에서 갈라진 산자락이 사방을 병풍처럼 휘감은 천혜의 자연분지로 마치 샹그릴라를 연상시킨다. 신라 무산현의 행정 치소로 통일신라 때 무풍현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조선시대 십승지지에도 그 이름을 올렸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풍동면과 풍남면, 횡천면 일부를 합하여 무주군 무풍면이 되었다. 남대천 유역에서 20개소, 원당천 유역²³⁾에서 12개소 등 32개소의 제철유적이 발견되었고, 구리바위골·구리바위들·동구점골 등의 지명으로 제동유적도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무주군 동북쪽에 위치한 설천면 제철유적이다. 설천면 지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 하나는 조선시대 설천(雪川) 이봉상(李鳳祥) 위패를 모신 설천사(雪川祠)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과 다른 하나는 구천불자의 밥을 지을 때 쌀뜨물이 계곡물을 하얗게 물들여 설천 지명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있다. 덕유산 동쪽 구천동계곡과 월음령계곡을 중심으로 백두대간 삼도봉 서북쪽 미대천과 청량산 동북쪽, 원당천과 남대천 양쪽 계곡에도 제철유적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 무주군에서도 가장 많은 60개소의 제철유적이 밀집 분포된 대규모 철산지다.

23) 백두대간 수령을 거느린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로 험준한 산줄기를 넘어야 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에도 무풍면에 속한 것은 역사의 미스터리이다.

넷째, 무주군 중앙부에 위치한 적상면 제철유적이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상곡면과 유가면을 하나로 합쳐 무주군 적상면이 만들어졌다. 적상산이 자리한 적상면은 대부분 산간지대로 괴목천과 적상천을 따라 약간의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다. 현지조사 때 상곡천과 삼가천이 하나로 합쳐진 괴목천 유역에서 3개소, 적상천 유역에서 4개소의 제철유적이 발견되었다. 진안군 동향면, 무주군 부남면과 인접한 적상천 유역에서 동광석을 녹여 구리를 생산하는 과정에 나온 검은색 슬래그가 수습되어 제동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개연성도 충분하다.²⁴⁾

다섯째, 무주군 서남쪽에 위치한 안성면 제철유적이다. 1914년 안성소 옛 이름을 살려 안성면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안성면 장기리 일대로 소재지가 옮겨지기 이전까지는 안성면 공정리 돈당마을과 봉산마을 사이에 안성소가 있었던 것 같다.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 계곡에 제철유적이 집중 산재해 있다. 현지조사 때 명천계곡에서 3개소, 용추계곡에서 4개소, 덕산계곡에서 3개소 등 1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발견되었다. 안성면 금평리(琴坪里)는 신선이 거문고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뜯는 형국이라 하여 생긴 지명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서북부에 위치한 부남면 제철유적이다. 『무주군지』에 부남(富南)은 부리현(富利縣)을 4개의 면으로 나눌 때 부리의 남쪽에 있는 고을이라 하여 부리의 ‘부’ 자와 남쪽의 ‘남’ 자를 따서 만든 지명이라고 한다. 반면에 금산의 남쪽에 있는 고을이라 하여 ‘부남’이라 불렀다는 주장도 있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부남면은 금산군에서 무주군으로 편입되었다. 금강 북쪽 부남면 가당리와 대유리에서 각각 3개소의 제철유적이 발견되었고, 부남면 장안리 식암마을 안창천 양쪽에 구리를 생산하던 제동유적도 산재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무주군 전 지역에 12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무풍면과 설천면의 밀집도가 월등히 높다. 백두대간 수령을 거느린 무풍면 삼거리리는 당초 대규모 철산지로서 원당천 유역에 속해 있으면서 행정 구역상으로는 무풍면에 속해 많은 궁금증을 자아낸다. 백두대간 삼봉산에서 나제통문 북쪽 석모산까지 뻗은 산줄기가 무풍면과 설천면을 갈라놓는 행정 경계로 그 양쪽에도 제철유적이 골고루 산재해 있다.

24)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에 구리골산이 자리해 지명으로도 그 개연성을 높였다.

4. 제철유적의 분석과 그 역사성

무주군은 제철유적의 보고로서 가야와 백제, 신라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한다. 장수가야가 봉화망을 구축과 신라가 나제동맹을 저버리고 백두대간을 넘어 무주군 일대로의 진출 배경도 철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웅진기 백제와 신라의 사신들이 오갔던 사행로(使行路)도 문헌에 등장하는 세 개소의 소(所)도 철 혹은 구리의 생산 및 유통의 소산물인 아닌가 싶다. 종래에 무주군에서 축적된 고고학 자료를 문헌에 접목시켜 무주군 제철유적의 현황과 성격을 분석하려고 한다.

1) 장수가야 봉화망과 신라의 진출

무주군 문화유적 중 그 성격이 검증된 것이 봉화다. 무주 노고산 등 봉화가 발굴조사로 그 운영 주체가 장수가야로 밝혀져 무주군이 전북가야²⁵⁾의 영역에 포함되었다.²⁶⁾ 무주군 안성면 소재지 서북쪽 산봉우리가 봉화산이다. 이 산이 봉화의 존재가 지명에 함축되어 여러 차례 지표조사를 통해 무주군 봉화의 분포양상이 얼마간 파악되었지만, 아직도 국경선을 따라 배치된 봉화의 분포양상이 파악되지 않아 추가 지표조사가 필요하다.²⁷⁾

무주읍 남쪽 관문인 싸리재 동쪽 산봉우리가 무주 당산리 산성이다. 2021년 무주 주계고성에서 신라토기가 수습되어, 국립군산대학교 고고학팀이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존재를 처음 학계에 알렸다. 신라와 장수가야의 국경선으로 추정되는 남대천을 사이에 두고 무주 주계고성이 북쪽에 무주 당산리 산성이 남쪽에 배치되어 있다. 무주 주계고성에서 서쪽으로 400m 거리를 두고 10여기의 신라계 고분이 조사된 무주 대차리 고분군²⁸⁾이 자리한다.

무주 당산리 산성은 산봉우리 정상부에 성벽을 두른 테피식으로 그 평면형

25) 가야사 국정과제에 국민 혹은 도민들을 초대하기 위해 남원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에서 발견된 가야계 유적과 유물을 하나로 묶기 위한 대중적이고 홍보적인 용어로서 학술적인 의미는 없다(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봉수왕국 전북가야』, 전라북도, 2019).

26)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전북가야사 및 유적 정비 활용방안』, 전북연구원, 2018.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전북가야 제철 및 봉수유적 정밀 현황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전라북도, 2019.

27) 백두대간 삼봉산에서 석모산까지 이어진 산줄기와 나제통문에서 무주 당산리 산성까지의 구간은 면담조사만 진행되고 아직 현지조사는 추진되지 않았다.

28)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무주 대차리 고분군』, 무주군, 2020.

태가 동서로 긴 장타원형이다. 모두 세 차례의 학술 발굴조사²⁹⁾로 서쪽 성벽 위에서 장방형의 봉화시설이 발견되었고, 이곳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도 또 다른 봉화시설이 더 배치되어 있다. 봉화시설은 허튼층쌓기 방식으로 벽석을 쌓아 전북 동부의 다른 봉화의 축조기법과 거의 흡사하다. 삼국시대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통일신라, 고려시대 토기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³⁰⁾

무주 당산리 산성에서 서쪽으로 4km 거리를 두고 무주 노고산 봉화가 있다.³¹⁾ 이 봉화에서 구리골산, 봉화산, 매방재산을 지나 최종 종착지 장수군 장계분지까지 선상으로 이어진다. 무주봉화로는 5세기 말엽 경 백두대간 덕산재를 넘어 무주군 일대로 진출한 신라³²⁾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장수가야에 의해 구축되었다. 신라와 장수가야의 국경선이 남대천을 경계로 형성되어 남대천 북쪽 신라 영역에서는 한 개소의 봉화도 발견되지 않았다.

무주군 동쪽 경계 백두대간 산줄기를 따라 한 갈래의 봉화로는 배치되어 있다. 장수군 장계분지 동북쪽 장수 덕유산 서봉에서 출발해 무릉산과 동엽령 사이 가림봉 봉화로 이어진다. 이곳에서 다시 북쪽으로 덕유산 향적봉 봉화에서 그 방향을 동쪽으로 꺾는다. 덕유산 국립공원 내 월염령계곡 동쪽 흥덕산을 지나 백두대간 삼봉산에서 멈춘다. 그렇지만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 영남지방에서는 가야 봉화가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다.

백두대간에 우뚝 솟은 삼봉산에 봉화가 있었다고 한다. 전북 동부 봉화망 중 가장 동북쪽에 위치한다. 백두대간 산줄기를 따라 장수군 장계분지까지 이어진 봉화로의 출발지다. 이 산봉우리에서 나제통문 북쪽 석모산까지 이어진 산줄기가 장수가야와 신라의 국경선으로 한 갈래의 봉화로는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산줄기 동쪽 신라 무산현에 속한 무풍분지에서는 봉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장수가야와 신라가 철산지 무주군에서 서로 대치³³⁾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018년 무주 대차리 고분군에서 조사된 11기의 신라계 고분은 바닥에 시상석을 갖춘 9기와 시상석이 없는 것이 공존한다. 충북 옥천 금구리, 경북 상주 현신동·병성동 등의 신라계 고분과 유구의 속성이 상통한다. 유물은 고배, 대

29) 전라문화유산연구원, 『무주 당산리 산성·봉화유적 정밀 발굴조사 자문회의자료』, 무주군, 2022.

30) 삼국시대 이후의 유물은 당산리 지명을 근거로 후대 제의 행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1) 전라문화유산연구원, 『무주 노고산 봉수』, 무주군, 2022.

32) 유수빈, 「토기로 본 전북 동부지역 신라세력 진출과정 연구」, 『湖南考古學報』 第72號, 湖南考古學會, 2022, 359~385쪽.

33) 이도학, 「삼국시대 장수군의 역사적 위상」, 『장수와 신라』, 장수군·국립익산박물관·국립군산대학교 박물관, 2024, 7~32쪽.

부장경호 등 40여 점의 신라토기가 유물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상한은 대체로 5세기 말엽 경으로 편년되었다.³⁴⁾ 무주 당산리에서도 신라계 목곽묘 1기와 석곽묘 11기, 수혈 주거지 5기가 조사되었는데, 그 시기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로 밝혀졌다.³⁵⁾

전북 무주군 일대로 신라의 진출이 무주 대차리·당산리 발굴조사로 입증되었다. 종래에 역사학계에서 통용된 시기보다 무주군으로 신라의 진출을 50년 이상 앞당겼다. 백두대간 덕산재를 넘어 나제통문을 통과하던 옛길을 따라 진출한 신라가 남대천 북쪽을 장악하였다는 증거물이다. 무슨 이유로 신라는 나제동맹을 저버리고 무주군에 그토록 큰 관심을 두었을까? 아직은 무주군 제철유적의 역사성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철산지의 장악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무주군 동북쪽 무풍면은 신라 무산현의 행정치소이다. 백두대간 산줄기에서 갈라진 산자락이 사방을 병풍처럼 휘감은 천혜의 자연분지로 무주군을 가로지르는 남대천 발원지도 거느린다. 이곳은 남대천을 따라 충적지가 넓게 펼쳐지고, 그 부근에는 구릉지가 발달해 빼어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동시에 금·은·동·철·규석 등 지하자원의 보고이다. 백두대간 덕산재와 소사고개를 통과하는 두 갈래의 옛길이 무풍분지를 경유하여 일찍부터 교통의 중심지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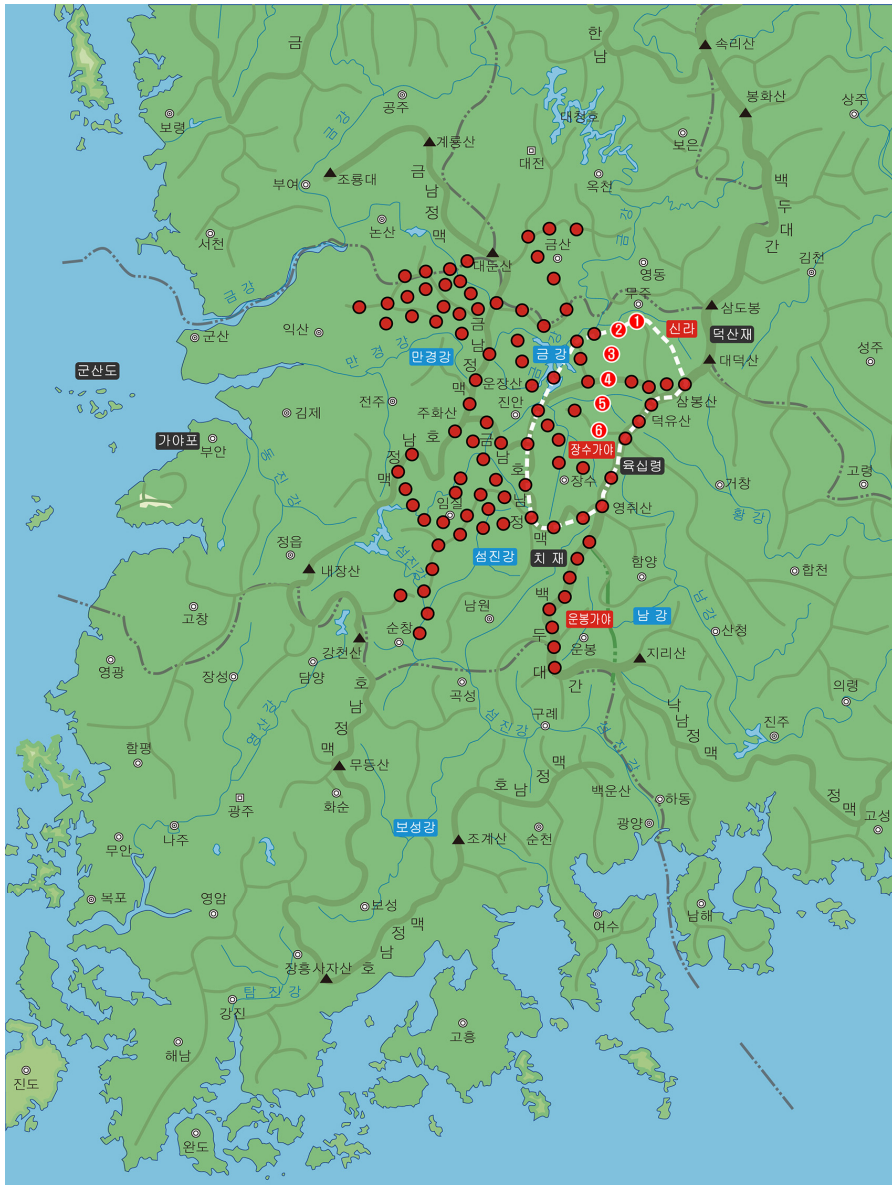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북리마을 부근에 신라계 분묘유적이 있다. 백두대간 삼도봉에서 박석산을 지나 한 갈래의 산자락이 북리마을까지 뻗어 내렸다. 이 마을을 휘감은 산자락에 신라계 고분이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오래전 도굴과 계단식 농경지 개간으로 유적이 아주 심하게 훼손되었다. 1970년대 신라계 고분에서 나온 6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신라·백제토기가 무풍초등학교 향토관에 전시되어 있으며,³⁶⁾ 그 일부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무주군 무풍분지는 제철유적의 메카다. 이제까지 3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발견되었고, 그 북쪽 미대천 유역까지 포함하면 40여 개소에 달한다. 지금도 국립군산대학교 고고학팀이 제철유적을 찾는 추가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무풍면 철목리 철목마을 북쪽 구리바위골, 구리바위를 지명이 제동유적의 존재 가능성도 암시한다. 아직은 무풍분지에서 가야계 혹은 백제계 유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34) 최병현, 『고고학으로 본 신라의 전북지방 진출과정』, 『전북학연구』 제5집,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2022, 28~71쪽.

35) 문화유산마을, 『무주 당산리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문화재 시·발굴조사 약보고서』, 무주군, 2023.

36) 全州大學校 博物館, 『茂朱地方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書』, 全羅北道·茂朱郡, 1988.



〈그림 3〉 전북 동부 가야 봉화망과 무주봉화로

(① 무주 당산리 산성 ② 노고산 ③ 구리골산 ④ 봉화산 ⑤ 매방재산 ⑥ 장수 수락봉 봉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647년(진덕여왕 1년) 겨울 10월에 백제의 군사가 무산(茂山)·감물(甘勿)·동잠(桐岑)의 세 성을 에워쌌으므로, 왕이 유신(庾信)에게 보병과 기병 1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막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³⁷⁾ 무풍면 소재지 동남쪽 산봉우리를 휘감은 테피식 성현산성이 문헌의 무산성의

로 추정되고 있지만, 아직 한 차례의 학술 발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라가 무주군 철산지를 얼마나 중요시하였음을 살필 수 있는 대목이다.

757년(경덕왕 16년)에 무산현은 무풍현(茂豐縣)으로 그 이름을 바꾸었는데, 무풍 지명에는 지상낙원의 의미가 숨어있다. 고려 초 무풍현은 강남도(江南道)에 편제되어 영남에서 호남으로 이관되었다. 1414년(태종 14)에는 무풍과 주계를 하나로 합쳐 무주현(茂朱縣)으로 만들고 그 치소를 주계(朱溪)에 두었는데, 주계는 무주군 무주읍이다. 무주라는 지명이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지금은 무주군이 대규모 철산지로 다시 태어났다.

조선시대 십승지지는 전쟁이나 천재가 일어나도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열 군데의 피난지를 말한다. 남원 운봉 지리산 아래의 동점촌(銅店村), 부안 호암(壺巖) 아래와 함께 무풍분지가 십승지지에 이름을 올렸다. 조선시대 열 개소의 십승지지 중 세 개소가 전북에 있었다. 무풍분지는 그 지명에 걸맞게 천혜의 자연분지이자 지하자원의 보고로서 전북 동부에서 대규모 철산지를 이루었다. 신선의 땅으로 유명한 운봉고원도 역시 대규모 철산지로 옛 교역망의 허브였다.

전북 동부에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양쪽에 두 개소의 신라 행정치소가 있다. 운봉고원의 모산현과 무주군 무풍분지의 무산현으로 모두 다 교통의 중심지와 전략상 요충지로 상징된다. 신라가 두 갈래의 옛길로 전북 동부 일대로 진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교롭게도 두 지역 모두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월등히 높은 철산지로 조선시대 십승지지에도 그 이름을 함께 올렸다. 전북 동부 신라계 문화유산의 역사성과 진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학술 발굴조사가 추진되었으면 한다.

2) 무주군 소의 성격과 위치 비정

조선 문종 2년(1454)에 간행된 『세종실록지리지』 전라도 전주부 금산군조에 “소(所)가 셋이니, 대곡(大谷)·안성(安城)·횡천(橫川)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반계수록』에도 소가 다시 등장한다. 신라 때부터 조선 초기까지 있었던 특수한 지방 하급 행정 구역이 향소부곡(鄉所部曲)으로 문헌에 횡천소가 철을 생산하던 철소로 등장한다. 무주군 철소가 문헌에 등장하여 그 위치와 성격을 고고학 자료로 가늠해 볼 수 있다.

1857년(철종 8년)에 만든 『동여도(東輿圖)』에 횡천(橫川)이 표기되어 있다.

37) 『동국여지승람』, 『문헌비고』 등 다른 문헌에도 무산성이 더 나온다.

이 지도는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판각하기 위해 만든 필사본 전국지도이다. 우리나라 옛 지도 중 가장 많은 인문지리 정보가 담겼다. 『동여도』에는 구천동계곡을 따라 흘러온 물줄기가 원당천으로 합류하는 서북쪽에 횡천이 표기되어 있다. 무주군 설천면과 적상면 경계를 이룬 김해산 동쪽 기슭 말단부에 관동마을이 있는데, 이곳은 관아가 있었다는 구전³⁸⁾과 그 위치가 옛 지도와 거의 일치한다.

전북 동부에서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 무주군 설천면이다. 덕유산 동쪽 일대로 구천동계곡과 월음령계곡을 따라 4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모여 있다. 엄밀히 표현하면 두 계곡은 모두 철의 계곡(iron Valley)이다. 구천동계곡 물줄기가 시작하는 오수자굴 부근 재자골에 소재한 제철유적은 그 규모가 200m 내외로 초대형이다. 구천초등학교에서 나제통문까지의 구간에도 원당천을 따라 양쪽 계곡에 제철유적이 골짜기마다 산재해 있다.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일대로 횡천소 관할로 추정된다. 현재 행정 구역상 무풍면에 속해 있지만 수계상으로는 원당천 최상류로 설천면에 더 가깝다. 백두대간 수령 북쪽 원당천 모두막골에는 1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무리 지어 또 다른 제철유적의 중심지다. 2020년 백두대간 삼봉산 서북쪽 기슭에서 초대형 제철유적이 발견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무주군 제철유적 중 그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대자연의 원시림을 방불케 한다.

무주군이 대규모 철산지였음을 지명으로도 내포한다. 백두대간 수령은 본래 뼈재였는데, 삼국시대 전락상 요충지여서 수많은 전사자가 생겨 죽은 사람의 뼈를 묻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³⁹⁾되었다고 한다. 백두대간 달암재는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던 제철유적의 의미가 숨어있다. 일제강점기 제철유적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철산지와 무관한 월음령으로 그 뜻이 와전되었다. 구전의 내용과 제철유적과의 연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학술 발굴조사가 요망된다.

무주군 서남쪽 안성면에 안성소가 있다. 덕유산 향적봉 서쪽으로 백두대간 산줄기에서 갈라진 산자락이 사방을 병풍처럼 휘감아 천혜의 자연분지를 형성한다. 백두대간 서쪽 기슭에서 시작하는 여러 갈래 물줄기가 안성면 소재지 서쪽에서 하나로 합쳐져 구량천 최상류를 이룬다. 구량천을 따라 양쪽에 충적지와 구릉지가 발달해 유적의 종류가 다양하고 많다. 구량천은 무주군을 적서주는 많은 물줄기 중 유일하게 진안 용담댐으로 들어간다.

어떤 특산물이 안성소에서 생산되었는지 전하는 기록이 없다. 2021년부터

38)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김동철 어르신이 제보해 주었다.

39)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상오정마을 주민들이 증언해 주었다.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주관 지표조사를 통해 안성면 일원에서 10여 개소의 제철 유적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 명천계곡과 용추계곡, 덕산계곡에 제철유적이 모여 있다. 이제까지 무주군 일원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120여 개소의 제철유적 중 안성면 제철유적의 규모가 월등히 커서 안성소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도 국립군산대학교 고고학팀에 의해 안성면 일대 제철유적을 찾는 지표 조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은 안성면 제철유적을 대상으로 한 차례의 발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 운영 시기와 운영 주체가 베일 속에 드리워져 있다. 안성분지 제철유적은 그 규모가 방대하고 수가 많아 안성소가 본래 철을 생산하던 철소가 아닌가 싶다. 아직은 제철유적을 제외하면 또 다른 생산유적이 안성면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1914년 안성소 옛 이름을 살려 안성면이라는 지명이 생겼다. 일제강점기 안성면 장거리 일대로 소재지가 옮겨지기 이전까지는 안성면 공정리 돈당마을과 봉산마을 사이에 안성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안성분지를 적서 주는 세 갈래의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풍수지리의 명당으로 토기편과 자기편, 기와편이 폭넓게 흩어져 있다.⁴⁰⁾ 본래 봉산마을 동쪽 구릉지에는 가야계 분묘유적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으로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⁴¹⁾

2021년 전주문화유산연구원이 대곡소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조사단은 문헌에서 대곡소를 확인한 뒤 무주군에서 대곡 지명 찾기에 들어갔다. 다행히 부남면 장안리에 상대곡마을 지명을 확인하고 바로 상대곡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남면 장안리 장안마을은 본래 하대곡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면담조사의 중요성을 또다시 되새겼다.

면담조사 때 장안마을 주민들이 옛날 장터 이야기를 꺼냈다. 이 마을 서쪽 상당히 넓은 도지갑들이 본래 큰 장터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증언해 주었다. 전북 동부에서 아주 큰 장으로 유명한 안천장이 산 너머에 있는데, 이곳에 장이 섰다는 주민들의 제보는 상당히 이채로웠다. 옛 장터가 대부분 계단식 논으로 개간되었지만 토기편과 자기편이 도지갑들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

40) 2024년 국립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주관 지표조사 때 감옥 터 부근에서 초석과 서북쪽 구릉지에서 와요지도 확인하였다.

41) 가야계 분묘유적은 그다지 험준하지 않은 산자락에 터를 잡아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으로 통째로 사라졌다.



〈그림 4〉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제철유적 슬래그 더미

으며, 유물은 대곡소의 설치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지명으로도 소(所)의 존재 가능성을 높였다. 부남면 장안리 상대곡마을 서남쪽 가장 높은 산봉우리가 관아 주관으로 제사를 모신 국사봉이다. 이 국사봉은 그 의미를 단정할 수 없지만 상대곡마을 이장님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사봉에서 산신제를 지냈다고 설명해 주었다. 금산 만인산 봉화에서 시작해 진안고원을 남북으로 종단하여 최종 종착지 장수군 장계분지 내 장수 수락봉 봉화까지 이어진 금산봉화로는 국사봉을 경유한다.⁴²⁾

부남면 장안리 서북쪽에 구왕산과 국기산이 있다. 구왕산은 남쪽 기슭 하단부에 금을 채굴하던 금광이 많아 달리 광산으로도 불린다. 이 산 동쪽 산봉우리가 국기산으로 그 의미를 속단할 수 없지만 정상부가 평탄하여 제사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국사봉과 국기산은 장안리에 대곡소가 자리하고 있었을 개연성을 더 높였다. 부남면 장안리 장안마을은 본래 하대곡마을로 지명으로도 대곡소와의 연관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구왕산 서북쪽 기슭 말단부에 부남면 장안리 식암마을이 있다. 국사봉 북쪽 기슭에서 시작하는 안창천이 서북쪽으로 흐르다가 식암마을 부근에서 반달모양으로 휘감아 돈다. 이 마을 부근 안창천 양쪽에 슬래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지금은 슬래그가 경지정리사업으로 사라져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 마을 하왕수씨 집 화단에서 확인한 슬래그는 그 속성이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⁴³⁾ 출토품과 거의 흡사하게 검은색을 띤다.⁴⁴⁾

무주군 부남면과 진안군 안천면 경계를 이룬 쌍교봉 동북쪽 기슭 중단부에

42) 충남 금산 만인산에서 시작하는 한 갈래의 봉화로는 충남 금산군과 전북 진안군을 남북으로 종단한 뒤 국사봉을 경유하여 장수군 장계분지까지 이어진다.

43)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 진안군, 2020.

44)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학계에 알려진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 제동유적에서 수습된 슬래그의 색깔과 거의 동일하다.

사기장골이 있다. 현지조사 때 식암마을 하왕수씨 안내로 가마터의 위치가 파악되었지만, 오래 전 사기장골 가마터가 대부분 계단식 밭으로 개간되었다. 기벽이 얇고 기형이 날렵한 순백자 대접과 접시편이 수습되었는데, 조선 초 유행한 순백자가 유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조선시대 초기 백자 도요지로 문헌의 대곡소와 그 운영 시기가 대동소이하다.

무주군 부남면 장안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만든 지질분포도에 동광석 산지로 나온다. 장안리 식암마을 안창천 양쪽에 산더미처럼 쌓인 슬래그는 구리를 생산하던 제동유적과 관련성이 깊다. 조선 초 순백자가 사기점골에서 수습되었고, 그 입구에서는 홍색을 띠는 동광석도 확인되었다. 아직은 한 차례의 발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 성격을 단정할 수 없지만 대곡소는 자기소(瓷器所)보다 동소로 추정된다.

인간과 자연이 하나로 응축되어 일군 것이 무주군 제철유적이다. 무주군은 제철유적 및 제동유적에서 요구되는 핵심 조건들을 대부분 충족시켰다. 자연이 선물한 철광석과 동광석, 숯, 흙, 물 등이 풍부하고, 인간의 지혜를 상징하는 첨단기술의 전래도 검증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제철유적을 홍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무주군의 미래전략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지금까지 무주군이 ‘청정무주’로만 회자되고 있지만 한반도 제철유적의 메카라는 콘텐츠를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5. 맺음말

우리나라 단일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제철유적이 발견된 곳이 무주군이다. 백두대간을 품은 무주군은 전형적인 산간지대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제철유적을 찾는 지표조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제까지 무주군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제철유적은 120여 개소로 남대천과 원당천, 구량천 유역에 밀집 분포되어 있다. 덕유산 국립공원 내 무주 삼공리 제철유적을 대상으로 그 역사성과 진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학술 발굴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이다.

전북 동부에서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높은 운봉고원과 장수군, 무주군에서 가야와 백제, 신라계 유적과 유물이 공존한다. 무주군은 대규모 철산지로 10여 개소의 봉화가 장수가야의 영역이었음을 방증한다. 가야계 소국 반파국이 신라 변방에 커다란 피해를 입힌 문헌의 내용은 무주군 철산지를 차지하기 위한 양국의 적대

관계로 추측된다. 무주군에서 가야 봉화가 배치된 지역만 장수가야의 영역에 포함시켰으며, 아직껏 신라 영역에서는 한 개소의 봉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무주 대차리 고분군 발굴조사로 무주군으로 신라의 진출도 고고학 자료로 실증되었다. 무주 주계고성 서쪽에 자리한 신라계 분묘유적으로 5세기 말엽 경 신라토기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백제가 공주로 도읍을 옮긴 이후에도 정치 불안이 계속되자 신라는 나제동맹을 저버리고 백두대간 덕산재를 넘어 무주군 일대로 진출하였다. 그리하여 남대천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무주 당산리 산성에 가야 봉화가 배치되어 있으며, 북쪽에는 신라토기가 수습된 무주 주계고성이 있다.

무주군 안성면 봉화산을 중심으로 10여 개소 봉화의 분포양상을 근거로 장수가야와 신라의 국경선이 복원되었다. 백두대간 삼봉산에서 나제통문 북쪽 석모산까지 북쪽으로 뻗은 산줄기가 장수가야의 동쪽 국경선으로 추정된다. 나제통문에서 금강까지의 구간은 남대천이 국경선으로 북쪽에 신라계 분묘유적이, 남쪽에는 장수가야의 산성 및 봉화가 배치되어 있다. 무풍분지를 중심으로 신라계 유적이 분포되었거나 신라계 유물이 나온 지역에서는 가야 봉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백제와 신라의 역학관계도 파악되었다. 무주 봉화산 등 무주군 일원에 가야 봉화망을 구축한 장수가야가 6세기 초엽 경 백제에 의해 멸망하였다. 백제는 그 여세를 몰아 남대천 북쪽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영역을 회복한 뒤 나제통문에서 양국의 국경선이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무주군 무주읍에는 백제의 적천현이, 무풍면에는 신라의 무산현이 설치된 것으로 문헌에 나온다. 백제는 지하자원의 보고 무풍면 일원을 탈환하기 위해 국력을 쏟았지만 그 뜻을 끝내 이루지 못하였다.

조선시대 문헌에 무주군 제철유적이 초대를 받았다. 문헌에 횡천소가 철소로 소개되어 있는데, 역사고고학의 연구방법에 의하면 안성소도 철소로, 대곡소는 동소로 추정된다. 무주군 무풍면은 금광·은광·동광·철광이 공존하는 지하자원의 보고로서 조선시대 십승지에도 그 이름을 당당히 올렸다. 무주군 일원에는 제철유적 못지않게 제동유적도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짐쳐진다. 무주군 생산유적의 역사성과 진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학술 발굴조사와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삼국사기』, 『동국여지승람』, 『문헌비고』
- 곽장근, 2020, 「전북 동부지역 제철유적 현황과 그 시론」, 『건지인문학』 제27호,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3-51쪽.
- _____, 2020, 「전북 동부지역 제철유적과 그 동향」,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 북가야』, 호남고고학회.
-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18, 『무주 봉수 및 제철유적 정밀 분포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 무주군.
- _____, 2018, 『전북가야사 및 유적 정비 활용방안』, 전북연구원.
- _____, 2019, 『전북가야 제철 및 봉수유적 정밀 현황조사』, 전라북도.
- _____, 2021, 『전북가야사 조사 성과와 미래 전략』, 전라북도.
- _____, 2020, 『무주 대차리 고분군』, 무주군.
- 김권일, 2020, 「제철유적 조사연구법 시론」, 『문화재』 제43권 3호, 국립문화재연구소, 144-179쪽.
- 디지털무주문화대전(<http://muju.grandculture.net>).
- 문화유산마을, 2023, 『무주 당산리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문화재 시·발굴조사 약보고서』, 무주군.
- 신경준, 1990, 『산경표』, 푸른산.
-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7, 『무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무주군.
- 유수빈, 2022, 「토기로 본 전북 동부지역 신라세력 진출과정 연구」, 『湖南考古學報』 第72號, 湖南考古學會, 360-386쪽.
- 유영춘, 2018, 「전라지역 제철유적 검토」, 『최신 동북아시아 고대 제철유적의 발굴성과와 그 의미』,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 _____, 2018, 「철기유물로 본 전북지역 가야의 교류」, 『호남고고학보』 제59집, 호남고고학회, 64-88쪽.
- _____, 2021, 「장수 대적골 조사성과와 의의」, 『전북 동부지역 제철유적 현황과 조사성과』, 전주문화유산연구원.
- 유철, 2013,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방안」, 『전북사학』 42호, 전북사학회, 5-44쪽.

- _____, 2020, 「전북 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가야』, 호남고고학회.
- _____, 2021, 「전북 동부지역 제철유적의 보존활용 수례(數例)」, 『전북 동부지역 제철유적 현황과 조사성과』, 전주문화유산연구원.
- 이남규, 2011, 「제철유적 조사 연구상의 주요 성과와 과제」, 『최신 동북아시아 고대 제철유적의 발굴성과와 그 의미』.
- _____, 2021, 「전북 제철유적의 현황과 조사 방법」, 『전북가야사 조사 성과와 미래 전략』, 전라북도.
- 이도학, 2021, 「전북가야의 역사적 실체 검증」, 『전북가야사 조사 성과와 미래 전략』, 전라북도.
- _____, 2024, 「삼국시대 장수군의 역사적 위상」, 『장수와 신라』, 장수군·국립의산박물관·국립군산대학교 박물관.
-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22, 『무주 당산리 봉화유적 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무주군.
- 전상학, 2013, 「진안고원 가야의 지역성」, 『湖南考古學報』 43, 湖南考古學會, 36-67쪽.
- _____, 2021, 「무주 삼공리 제철유적 현황과 조사성과」, 『전북 동부지역 제철유적 현황과 조사성과』, 전주문화유산연구원.
-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0, 『남원 옥계동 제철유적』, 남원시.
- _____, 2020, 『장수 대적골 제철유적』, 장수군.
- _____, 2021, 『전북 동부지역 제철유적 현황과 조사성과』.
- _____, 2023, 『무주 삼공리 제철유적』, 무주군.
- 全州大學校 博物館, 1988, 『茂朱地方文化遺蹟地表調查報告書』, 全羅北道·茂朱郡.
- 조명일, 2012, 「금강 상류지역 산성 및 봉수의 분포양상과 성격」, 『湖南考古學報』 第41號, 湖南考古學會, 67-90쪽.
- _____, 2018, 「전북 동부지역 봉수에 대한 일고찰」, 『호남고고학보』 제59집, 호남고고학회, 90-107쪽.
- _____, 2023, 「전북 동부지역 봉화 조사현황」, 『무주 당산리 봉화유적』, 전라문화유산연구원·무주군.
- 조자영, 2021, 「남원 옥계동 제철유적 발굴성과와 그 의미」, 『전북 동부지역 제철유적 현황과 조사성과』, 전주문화유산연구원.
- 최병현, 2022, 「고고학으로 본 신라의 전북지방 진출과정」, 『전북학연구』 제5집,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27-71쪽.

최완규, 2018, 「전북지역의 가야와 백제의 역동적 교류」, 『호남고고학보』 59, 호남고고학회, 4-24쪽.

_____, 2021, 「전북에서의 한/마한/백제/가야」, 『전북가야사 조사 성과와 미래 전략』, 전라북도.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2, 『한반도의 제철유적』, 242~250쪽.

한수영, 2016, 「장수지역 철기문화의 출현과 전개」,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 철을 밝히다』, 호남고고학회·전주문화유산연구원.

_____, 2020, 「아이언로드, 철기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가야』, 호남고고학회.

_____, 2021, 「전북 동부지역 제철유적의 보존활용 사례(數例)」, 『전북 동부지역 제철유적 현황과 조사성과』, 전주문화유산연구원.

호남고고학회, 2020,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가야』.

<Abstract>

Iron Remains of Muju-gun and Its Historical Value

Kwak Chang-keun*

Muju-gun within the terrains of Baekdu Mountain Range is nestled in the mountainous region on the east side of Jeollabuk-do Province and a great source of underground resources such as gold, silver, bronze, and iron. Through recent earth surface investigation, around 120 sites of iron remains have been discovered in this region and this is the largest number among all single municipalities in Korea. Centered around the Namdaecheon Stream, which traverses through Muju-gun, the density of these sites is high along the Wondangcheon Stream and the Guryang Stream. In terms of administrative zones, they are included in Mupung-myeon, Seolcheon-myeon, and Anseong-myeon in Muju-gun. Although the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 search of the cultural heritages in Muju-gun are very scarce, it is a place where you can experience the history of Gaya, Baekje, and Silla through various historical relics and artifacts. A branch of beacon from Dangsang-ri Fortress in Muju extends through the beacon on Mt. Nogosan and Mt. Bonghwasan in Musu, reaching the Janggye Basin in Jangsu-gun. There also is a beacon on the mountain ridge extending from Mt. Sambongsan of the Baekdu Mountain Range to Mt. Seongmosan to the north of Najetongmun Gate. As a result of excavations in Daecha-ri, Muju-gun, it has been discovered that Silla expanded to Mugu-gun beyond Deoksanjae of the Baekdu Mountain Range in the late 5th Century and named the fortress of Hyeonnae-ri, Mupung-myeon Musanseong. Daegokso and Anseongso mentioned in 『Sejongsillok』 are assumed to be Cheolso, while Daegokso may be Dongso. Muju-gun, including Mt. Deogyusan, has been known as ‘the Clean Muju,’ but it could also be marketed as a tourism resource with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after exploring the historical value of the iron remains.

Key Words : Gaya, Baekje, Silla, Iron remains, Baekdu Mountain Range, Mt. Deogyusan

*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History & Philosophy[History Major]